



5면

김승환 교육감, 남원 용성중 온라인 개학 참관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0년 4월 17일 금요일 (음 3월 25일) 제2519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마티스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선자들은 16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익산을 한병도, 전주를 이상직, 전주병 김성주, 정읍·고창 윤준병,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전주갑 김윤덕, 익산갑 김수홍, 군산 신영대, 김제·부안 이원택 당선자.

“책임감 갖고 전북성공시대 열 것”

민주당 전북당선인 9인 기자회견 갖고 당찬 포부
문재인 정부 성공·정권 재창출·개혁 완수 각오

“당선의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북 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염원을 모아 전북성공시대를 열겠습니다”

15일 치러진 전북도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승과 함께 1당을 되찾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원팀이 돼서 전북성공시대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1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인 김윤덕(전주갑), 이상직(전주을), 김성주(전주병), 신영대(군산), 김수홍(익산갑),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김제·부안),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등 9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총선에서 전북은 지역구 10석

가운데 민주당이 9석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1석을 무소속이 얻었다.

이들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전북도민의 선택은 국가재난 극복과 전라북도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당선인들은 촛불을 들고 나라다운 나라 되찾는 국민의 뜻을 실현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과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속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해 14개 시군의 전성시대를 열겠다”며 “처음에 약속했던 원팀정신을 잊지 않고 합심해 국난극복과 전북의 성공,

문재인 정부의 성공의 길에 하나뿐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9인의 당선인들은 각자 당선 소감을 밝힌 시간에 전북 발전과 문재인 정부 성공, 개혁 완수 등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갈 것을 굳게 다짐했다.

당선인 일동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정말 일하는 국회, 국민을 섬기는 국회로 만들어 국민들의 바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하고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공하는 국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의 협력이 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 지역 농산물 드라이브 스루 ‘업그레이드’

1차 ‘뜨거운 호응’ 이어 내일 2차행사... 최대 50% 저렴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농민을 돕고 도민에게는 건강한 농산물을 저렴한 값에 제공하기 위해 전북도가 마련한 드라이브 스루 농산물 판매행사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1차 판매 당시 개장 4시간여 만에 완판을 기록하는 등 도민의 호응이 뜨거웠던 행사는 이번에는 아이들 간식을 위한 신선식품 위주로 구성됐으며 판

매라인 증설과 신속한 결제 등으로 더 원활한 구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도내 농촌마을 상품을 홍보하기 위한 ‘제2차 드라이브 스루 할인판매 행사’를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청 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드라이브 스루는 판로가 막힌 농업인을 돕고, 도내 농촌마을에서 생산한 최상의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도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할인율은 시중가보다 평균 30~50% 정도 저렴하다.

판매상품은 트리벨리 파프리카, 방울 토마토, 사과, 햇감자 등 신선농산물과 목이버섯, 떡갈비, 치즈 돈가스, 사과즙 등 가공식품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초·중·고교가 온라인 개학을 함에 따라 건강간 먹거리들을 준비해야 하는 부모의 근심을 덜기 위해 자녀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제철 과일과 간식거

리 위주로 이전보다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다. 또한, 1차 행사에 많은 도민이 찾으면서 빚어진 차량 정체와 대금결제 시간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판매라인을 3개로 늘렸으며, 일반 마트에서 사용하는 POS 시스템 도입했다.

행사장은 도청 복문(마전들로, 대한방직 사잇길 천변쪽 입구)으로 진입해야 하고, 현장에서 현금과 카드 결제 모두 가능하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물국장은 “1차 드라이브 스루 행사에 이어 이번 행사는 농촌마을과 도민이 함께 웃는 착한 나눔행사로 벌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한옥마을 문화재야행 야간관광 명소 거듭 인정

한국관광공사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

문화와 관광으로 세계와의 승부에 나선 전주시의 문화재야행이 국가대표 야간관광 명소로 거듭 인정받았다.

지난해 역대 최대 관광객인 28만 여명이 다녀간 전주문화재야행은 지난 2018년 문화재청이 최우수 야행으로 선정함에 이어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꼭 가봐야 할 야간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시는 한옥마을 일대에서 진행되는 ‘전주문화재야행’이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국내 ‘야간관광 100선’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내 ‘야간관광 100선’은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관광산업의 회복을 위해 국내 지역별 야간관광지를 대상으로 SK텔레콤 T맵 야간시간 목적지 281만 건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력도, 접근성, 치안 및 안전,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정됐다. 특히 고풍스러운 한옥과 아름다운 경관

조명이 있는 경기전 등 전주한옥마을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문화재야행은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한지등 만들기 △조선왕 클러킹복 △야행 놀이터 △거리의 화공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가 진행돼 가족단위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시는 문화재야행에 지난해 역대 최대 인원인 619명의 인력을 투입했다. 특히 401명의 참여자 중 368명(92%)을 전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지역 예술가들로 구성하는 등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왔다. 올해 시는 문화재야행을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투어 코스와 체험 프로그램, 야간 공연 등 신규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하반기로 일정을 조율해 진행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간이 몰카탐지카드’ 제작

전북도는 최근 불법 영상촬영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급증으로 몰카에 대한 두려움이 커짐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자체 탐지가 가능한 ‘간이 몰카탐지카드’ 5,000매를 제작·배부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예방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되는 간이 몰카탐지카드는 일반 신용카드 크기로 지갑이나 휴대폰에 가볍게 넣어 다닐 수 있어 공중화장실이나 숙소 등 불법 촬영 의심 장소에서 상시점검이 가능하다.

이는 탐지카드를 휴대폰 화면에 카메라에 대고 플래시를 켜 채 동영상 촬영을 하면 숨겨진 촬영기기 렌즈 부분이 반짝 빛나며 휴대폰 화면에 하얀 점으로 보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카드 하단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와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가 안내되어

있고 이용자를 위한 카드 사용법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다. 현재 도내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 전북센터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 창구로 운영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신청하면, 특별지원단에서 신속한 삭제, 심층 심리치료, 상담·수사 및 개인정보 변경 시 1:1 동행 지원, 무료 법률 지원 등 맞춤형으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 없이도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하다. 전북도는 또 도내 성폭력피해 상담소와 해바라기 센터 등과 연계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민선7기 제50대
진안군수 전춘성
취임을 축하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진우회 회원일동